

전남 섬, 국제 문화교류 중심지로 떠오른다

7월부터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미국·프랑스 등 16국 37명 참여 '가고 싶은 섬' 5곳서 9월까지 지역문화 경험·환경 정화 활동

전남도가 섬을 국제적 문화교류 중심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 청년과 한국 청년이 참여하는 하반기 '국제 청년 섬 워크 캠프'를 7월부터 전남의 '가고 싶은 섬' 사업지에 시 개최한다.

이번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는 올해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이름을 올린 보성 장도와 고흥 연흥도를 비롯해 완도 생일도, 진도 대마도 등 5개 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거쳐 프랑스, 미국, 브라질 등 15개 나라 37명을 모집했고, 워크 캠프별 사전교육과 함께 코로나19 검사 진행 등 자체 방역지침도 마련했다. 7월 보성 장도에서 '별 배 타는 장도 여성의 생활사 기록'을 시작으로 8월 완도 생일도 용출 마을호텔 경영 이벤트인 '생일 스테이', 진도 대마도의 해변 정화활동과 대마분 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9월 고흥 연흥도의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골목길

설치작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펼쳐지는 보성 장도 워크캠프는 참가자들이 한국 지역문화를 경험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인 뱀배어업을 하는 보 성 장도 어머니들의 일상을 참가자들이 직접 영상 으로 기록하고, 사라지는 어촌 고유 문화를 청년 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섬 워크캠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올 상반기 워크캠프엔 8박 9일 동안 독일, 폴란 드, 프랑스, 인도네시아, 한국 등 9개 나라 14명의 청년이 참가했다. 이들은 무안 탄도과 신안 우이도 에서 해안쓰레기 정화와 숲속 생태놀이기구 제작

등 섬 특색에 맞는 봉사활동을 했다. 신안 우이도 워크캠프에선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중 하나 인 '해양생태계 보존'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 의 플랫폼을 통해 환경 토론회를 했다. 워크캠프 참가자들이 우이도 피밭너머 해변의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면서 해양 환경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치러졌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국내외 청년이 전남의 가고 싶은 섬을 기쁘고, 홍보하도록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섬과 청년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전남의 섬 이 국제적 문화교류 중심지로 떠오르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월 전통주에 신안꾸지뽕생막걸리 선정



전남도는 100% 신안 햅쌀과 유기농 꾸지뽕으로 빛은 암태주조장의 '신안꾸지뽕생막걸리'를 7월의 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신안꾸지뽕생막걸리는 은은한 과실향, 고소한 쌀 내용과 함께 맛이 달콤 하면서도 담백한 60년 전통의 프리미엄 탁주다. 주재료인 꾸지뽕은 신선들의 선식이라고 불린 4대 향암약초다. 플라보노이드를 비롯해 비타민, 폴리페놀,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에도 함양효과, 피로회복 과 혈액순환 개선, 간 기능 개선, 혈당 균형을 맞추 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다.

암태주조장은 물 좋기로 유명한 신안 암태도의 유일한 양조장으로, 6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도에서 지원받은 생산자동화 시스템과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고품질의 막걸리를 생산한다.

문성진 대표는 "전통주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영 리 목적을 떠나 소비자가 믿고 찾는 주조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1000곳 공공와이파이 설치

전남도가 올해 도내 공공장소 10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 터넷 확대구축사업'의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버스 정류장,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번에 설치되는 와이파이는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를 공급한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민선7기 김영록 전남지사 의 공약으로, 2018년 274개소, 2019년 700개소, 지난해 1340개소에 설치한 바 있다.

핸드폰으로 주변 와이파이 신호를 검색한 후 검 색한 목록 중 'Public WiFi Free'를 선택해 접속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손재형 전남도 스마트정보 담당관은 "도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해 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통신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사회적기업 우수 제품 꾸러미 만나보세요 전남도 16일까지 특판행사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와 판 로 지원을 위해 우수제품으로 구성된 '가 치꾸러미' 특판행사를 벌인다.

이번 특판행사는 전남도와 전남사회적 경제유동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한 행사로 16일까지 진행된다.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을 만 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회적기업의 날'은 매년 7월 1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법정기념 일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꾸러미는 집콕 간식, 홈 다 이아트, 튼튼 방역, 혼술 안주 등 4가지 종류로 만들어졌다. 각 꾸러미는 5개 제 품으로 구성, 최대 37%까지 할인한다.

전남도 사회적경제소상공인 '녹색 나 늬(greenanum.co.kr/)'을 통해 구입 할 수 있다.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 2천 포인트가 지급되며, 택배비는 무료다.

현재 전남에는 1842개 사회적경제기 업이 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고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기회가 적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소비추세가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적용에도 어려움이 많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 역 공동체와 환경을 살리는 착한 소비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순천만국가정원서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전남도는 지난 2일 순천시와 함께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관광객이 많은 여름 휴가철 도내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순천시에서 확

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도내 주요 관광지과 숙박시설 등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전남도·순천시 직원들은 이날 순천만 국 가정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KF94), 손세정제 등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의 준수를 당부했다.

전남농업박물관 백두대간 자생 씨앗·꽃 선 보인다

7월 한달간 시드볼트 사진 특별전

전남농업박물관은 7월 한 달간 '백두대간 자 생씨앗 아름다움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시드볼트 Art-SEM 사진 특별전'을 개최한다. 박물관 기획 전시실에 펼쳐지는 이번 특별전에선 3차원 영상을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해 종자저장소인 '시드볼트'에 있 는 씨앗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아름답게 이미지화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작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후 얻은

흑백 이미지에 색을 입힌 것으로 신비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열매지, 미치광이 풀, 짚신나물, 쑥부쟁이, 큰두루미꽃, 털중나리 등 다양한 씨앗과 꽃가루 사진 50여 점을 선보인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종자저장고 '시드볼트'와 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비로운 사진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마련했다.

시드볼트(Seed Vault)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 연재해, 전쟁, 핵폭발 등 지구 대재앙으로부터 생 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야생식물 종자를 영구 보존

하는 저장 시설이다.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 '스발 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우리나라 '백두대간 글로 벌 시드볼트' 단 2곳뿐이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 드볼트'는 경북 봉화군 춘양면 지하 46m 깊이 터 널에 조성됐다.

임영호 전남농업박물관장은 "식물 씨앗의 다양 한 모양과 특징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많은 도민이 씨앗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식물 유전자원의 가치와 시드볼트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초섬 내, 시세 9억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 상담문의.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합니다

▶ H. 010-2928-0202

오피스텔 부지, 급매

- ▶ 광주광역시,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매 - 23억(평당1300만원)
- 주식회사 미르. 010-3605-5000